

朴寅煥의 모더니티(modernity)의 本質과 限界

張 承 燁*

- | | |
|--------------------|-----------------|
| 1. 序 論 | 2-1-2. 덴다이즘의 측면 |
| 2. 本 論 | 2-1-3. 니힐리즘의 측면 |
| 2-1. 朴寅煥의 모더니티의 성격 | 3. 結 論 |
| 2-1-1. 데카당스의 측면 | |

1. 序 論

朴寅煥은 소위 후반기 모더니즘의 同人으로서 모더니스트로 규정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定說이었다. 이는 물론 그를 비롯한 金慶麟, 金洙暎, 林虎權, 梁秉植 등의 五人이 그들의 시를 모은 詞華集「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서 모더니즘 志向을 선언하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며 詩作을 계속한 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실상 그들의 모더니즘적 특색 내지는 實像 규명에 대한 論究가 昨今에 稀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모더니즘이란 거대한 한 흐름의 완벽한 개념파악에 무리가 있었던 연유로 추정된다.

이들보다 앞서 1930 년대에 우리 시단에는 20 년대의 感傷 일변도의 시에 대한 하나의 극복의 방편으로, 영문학자 崔載瑞, 그리고 일본 仙台的 東北大學에서 영문학을 專攻하고 특히 이미지즘의 이론가인 I.A. 리차즈를 탐구한 金起林 등에 의해 우리 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모더니즘은 지금까지 많은 論難을 야기하였다. 그 이유로서, 30 년대 모더니스트는, 가령 모더니즘을 거대한

* 부산여전 문예창작과 전강

氷山에 비유한다고 할 때 그 一角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修辭學的 방법」,¹⁾ 즉 단순히 이미지즘의 영역에서 파악되어 질 수 있는 視覺的이며 繪畫的인 이미지리 추구 일변도에 그치거나 무분별한 외국문화 동경에 의한 偏向을 유발하거나 하여 西歐 모더니즘의 전반적 성격의 반영은 고사하고라도 그 본질적 성격에 맥락조차 닿지 아니 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西歐와 우리 나라의 문화적 土壤의 차이 때문이었으나 본질적으로 30년대 모더니스트의 모더니즘에의 인식과 수용에 결함이 있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²⁾

그러나 후반기 모더니즘은 30년대에 비해서는 多少 西歐 모더니즘의 본질적 측면과 맥락을 통하고 있거나 近似한 공통 因子를 內包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³⁾ 특히 朴寅煥의 여러 시에서 이러한 특성이 抽出되고 있고 이것은 本論에서 詳論하겠거니와 그 推論의 근거를 잠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寅煥이 생존한 시대와 西歐 모더니즘이 서서히 발상되던 시기는 무려 반세기 이상의 차이가 있으나, 30년대와는 달리, 해방 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던 激動의 情況이 내포하는 多樣性이 西歐 모더니즘 발상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흡사한 바가 있다. 光復 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던 流動的이며 可變的인 상황이 내포하는 특징적 양상을 日帝의 오랜 지배하에서 해방되어 自律을 志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시대적 전통의 붕괴와 낡은 가치관의 倒壞, 諸般 문화 양상의 급변 등에 의해 새로운 모더니티 志向性(modernity orientation)의 추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패턴(pattern)이 西歐의 모더니즘 발상 무렵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寅煥은 후반기 모더니스트 중에서도 유별나게 이러한 시대를 절실하

1) 吳世榮, 모더니스트, 비극적 상황의 主人公들(文學思想 통권 28호) 1975, p. 340 參照.

2) 이에 대하여 宋禧의 「詩學評傳」, 一潮閣, 1963, p. 192, 金容稷의 「韓國 現代詩研究」, 一志社, 1976, p. 284, 吳世榮의 앞의 책, p. 340 부분 參照.

3) 특히 1930년대의 모더니스트가 놓쳤던 內面性에의 관심의 漸高와 金履麟이 선언한 바와 같이 현대가 내포하는 특징적 양상의 하나인 시대의 病理的 현상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나 西歐모더니즘을 겨냥한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학 인식에서 이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게 텃취하고자 하는 모더니티 志向性의 예민한 감수성을 보였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시집이나 화제로 소설되어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朴寅煥 選詩集」을 원래 「검은 峻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계획이었다는 그의 詩集 후기 述壤⁵⁾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검은 峻烈의 시대」가 내포한 현대문명의 다양한 病理 현상은 寅煥의 感性을 예리하게 자극하였으며 따라서 인환은 이러한 시대에 절망하고 고뇌 탄식했던 것이며 이것이 그의 直情的인 스타일의 詩篇들로 엮어져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현대⁶⁾가 生成한 모더니즘은 현대의 특징적 면모를 具有한 시대상과 不可分의 관계에 놓여 있고 이러한 시대상에 대한 시인의 인식——modern characteristic 와 시인의 인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모더니즘은 生成된다——이 모더니즘의 實像과 位相을 규명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人환의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양상, 예컨대 nihil(nihil)한 性向, 절망, 불안, 고독 등의 人환 특유의 패턴은 그가 생존하던 시대상이 발현하는 諸般 특성과 그것을 인식한 人환의 시인으로서의 개성적 감성과 氣質의 混融體라고 봐야 할 것이다.⁷⁾

따라서 本稿에서는 人환이 그가 생존하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그 인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식에 대한 그의 감성과 生來의 氣質이 어떻게 混融되어 人환 시의 특유의 모더니티와 패턴을 빚어 내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人환의 모더니즘의 實像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究明하고자 하는 바이다.

4) 金奎東, 한 줄기 눈물도 없이, 否定의 정신과 휴머니즘, 세월이 가면, 詩人 朴寅煥과 文學과 그 周邊(이 책은 이후 세월이 가면으로 略稱한다), 槿城書齋, 1982, p. 57 參照.

5) 朴寅煥 選詩集 後記, 앞의 책, pp. 253—254.

6) 여기서 현대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의 경우 西歐와 같이 다름 양상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현대의 개념 정립은 특히 후반기 모더니스트의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7) 시인의 自我(noesis)가 세계와의 만남에서 시인의 구체적 自我(noema)는 現實化하며, 어떻게 구체화된 시인의 noema에 대한 분석은 곧 그 시인의 시적 패턴과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金梭五, 「詩論」, 文章社, 1982, pp. 19—20 參照.

2. 本 論

2-1. 朴寅煥의 모더니티의 성격

2-1-1. 데카당스의 측면

모더니즘(modernism)이란 용어(terminology)가 적당한 우리말 譯語를 이제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모더니즘이 內包하고 있는 다양하고 包括적인 개념을 단적으로 표현하기가 용이치 않은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30년대 모더니즘의 성격은, 「이미지즘의 측면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主知主義의 계열로 한정되고」⁸⁾ 있는데, 이것은 서론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더니즘의 다양한 技法 중 극히 일부분을 備用한 것으로 시인의 스타일과 병행한 偏向으로 떨어진 폐단을 낳은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빚은 것은, 모더니즘의 본질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起因한다. 말하자면 西歐 모더니즘의 발상 원인과 그 內面性을 한국적으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表皮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표현기법을 20년대 한국 시단을 橫溢한 무질서한 感傷性 극복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었고, 따라서 30년대 모더니스트는 애초에 모더니즘의 受容 태도에서부터 그들의 한계와 결함을 內在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이러한 결점은 후반기 모더니즘의 新詩論에서 多少 보완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金慶麟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서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저속한 리얼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발한 現代詩는 또한 우연하게도 놀라운 속도를 갖고 온 지구에 전파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病理學的인 生理를 內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新世代의 빛깔처럼 현대인의 지성에 자극을 주는 바가 되어……모더니스트임을 자처하였으나 그들은 너무나 강한 현실의 저항선을 넘어 신영토를 개척하지 못하였기에 시의 국제적인 발전의 코스와는 정반대의 方向에 기우러져 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物理的, 化學的 그리고 정신적 등의 세계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듯 詩의 역사적 코스를 향해 발전하여

8) 吳世榮, 前掲書. p. 334 參照.

9) 註2 參照.

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詩는 결국 前進하는 思考인 것이다.¹⁰⁾

여기서 모더니스트임을 自處했다는 사람들은 30년대 모더니스트를 지칭한 듯 한데, 결국 후반기 모더니즘의 同人들은 선배의 결함을 시정내지 보완하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던 셈이다.

金慶麟의 이러한 선언은 후반기 모더니즘의 성격을 대체로 示唆하는 것으로서 病理學的인 生理를 내포하는 것과 世界性을 확보하는 것이 현대시의 방향이며 특히 현대의 時代相에 대한 민감하고 절실한 시인의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金慶麟은 모더니즘을 인식하였으며 新詩論에 동조한 朴寅煥도 예외일 수 없었다. 말하자면 30년대 모더니즘이 놓쳤던 내면성에 대한 관심과 친착에의 의욕을 후반기 모더니스트가 자각함으로써 그들은 모더니즘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더니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더니즘의 발상은 19세기 말로 소급된다. 그것은 모더니즘이 본질적으로 「19세기 世論의 붕괴」¹¹⁾로 말미암은 연유이다. 「19세기 世論」으로 비롯되는 前近代的인 諸般 양상의 붕괴에 대한 인식은 T.E. 홀의 灰燼思想에서 상징적으로 示唆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을 包括하는 우주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宇宙는 다만 부분적으로 組織되어 있을 뿐이며, 그 나머지는 灰燼이다」¹²⁾로 한결같이 19세기적 世論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傾倒되어 있고, 이러한 灰燼 위에 새로운 理性과 秩序, 그리고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區劃된 사회 구조와 王政체제의 단순화된 구조의 倒壞와 더불어 산업문명의 발달과, 유럽의 전통적인 정신적 지주이었던 크리스찬·이데올로기의 地盤이 흔들림과 동시에 개인의 존재론적

10) 金慶麟,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의 선언, 韓奉玉의 「韓國現代詩研究」, (親學社, 1975), pp. 53—54 再引用.

11) Peter Faulkner, 「모더니즘」, 黃東奎 譯, 문학 비평 총서 18,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 18.

12) T.E. Hulme, Cinders' Specul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24, 1958) p. 220. There is a difficulty in finding a comprehensive Scheme of the cosmos, because is none. The cosmos is only organised in parts; the rest is cinders.

자각 등이 환기하는 현대의 특징적 상상인 「경험의 복잡성」¹³⁾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의 인식은 ‘스티븐 스펀더’의 지적과 같이 「형식과 어법을 통해 전례없는 현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그 무엇이어야 했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주의는 이미 현실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¹⁴⁾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이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험의 묘사를 초월한 복잡다단한 경험의 양상을 구유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이렇게 경험의 복잡성의 인식은 前近代의인 諸般 文化 양상과 전통 美學에 대한 결별을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모더니즘에 일관되는 내면적 본질은 前近代에 대한 과감한 부정과 반전통으로 비롯되는 현대 정신의 발현이며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 그리고 새로운 美學 추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데카당스(decadence)가 「19세기 世論에 대한 전면적 파괴, 모든 낡은 것에 대한 봉괴를 선언한 양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 바」¹⁶⁾ 모더니즘과 데카당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含有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에 의해 견지되던 전통문학에 대한 반발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급변하는 사회 情況과 병행하여,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보들레르나 플로베르에 의해 부르조아의 인도덕 개념 타기와 자신들의 소의 인식에 의한 반전통과 새로운 美學 추구를 본질로 하는 데카당스를 유발하였다.¹⁷⁾ 영국에서도 이러한 반동은 로젠티(Rossetti)와 스윈번(Swinburne)의 前期 라파엘主義(pre-Raphaelism)와 함께 도래하였고, 1873년 월터 페이터(walter pater)의 <르네상스> 結 論 章은 예술가의 자리가 도덕적 대변인의 자리라는 전통적인 지배적 관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구체화되었다.¹⁸⁾

13) Peter Faulkner, *Ibid.*, pp. 18—22 參照.

14) *Ibid.*, p. 20.

15) *Ibid.*, p. 21.

16) 具然賦, 現代詩의 方法論的 考察—데카당스와 메베이즈망을 中心으로, 『동아논총』 別刷, 1972, pp. 4—5 參照.

17) Peter. Faulkner. *Ibid.*, p. 5. 參照.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원은 1848년 2월 혁명에 의하여 루이 필립(Louis philip) 王國과 부르조아 휴머니즘이 붕괴된 사실로 소급된다.

이 시기의 政治, 道徳은 극도로 頹廢하게 되어, 市民사회에 많은 모순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社會의 弊害는 批判의 대상이 되었고 資本市民의 平凡卑俗, 탐욕부패에 따르는 社會惡에 대한 憎惡와 反撥에서 그리고 寫實主義 藝術家들이 이러한 社會의 모순, 불행, 죄악에 대하여서 悔恨, 苦惱, 憤怒, 絶望이 없고, 現象을 現象으로만 記錄, 原因, 善惡, 美醜에 대한 反抗이나 改革을 생각하지 않는 冷酷한 藝術觀에 대한 藝術의 反撥을 배경으로 하여——리얼리즘에 대한 이러한 반발이 주요 動因의 하나가 되는 데카당 운동(decadent movement)의 성격은 앞서 論及한 「스티븐 스펀더」¹⁹⁾의 모더니즘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리얼리즘은 데카당스와 모더니즘이 인식한 病理學的 生理의 시대상이 내포한 복잡성을 본질적으로 受容하는 데 적합치 못하다는 것은 前述한 바이다. 그것은 데카당스와 모더니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좌표가 본질적으로 모더니티 지향성(modernity orientation)에 놓여 있음을 示唆 하기도 한다——여기 감수성이 강한 젊은 시인들은 근대문명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官能的 향락주의, 찰라주의로 芳醇한 술에 醉하고, 脂粉, 香水, 絢爛한 色彩 등 人工美의 讚美, 實用卑俗한 功利 속에서 高踏의 藝術至上, 病的 神經過敏, 異國에의 憧憬과 幻想病, 娼婦의 眞實, 醜에서 美를 惡에서 善을 發見하고자 하는 이로니이(ironie)의 형식을 취하였다.²⁰⁾

이러한 데카당스의 출현은 곧 모더니즘의 先驅가 된다. 그것은 19세기 世論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새로운 가치관과 美學 추구라는 소위 「권위에

18) Peter. Faulkner. Ibid., p. 5. 특히 이에 대하여는 A. Preminger 外 共著,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 185. In modern poetry decadence has been identified most persistently in works related to the French Symbolist-decadent movement of the late 19th century, whose influence in the British Isles encouraged native tendencies already nurtured by the ideas of Walter Pater, the poetry of Rosseti and Swinburne and the general ambience of the Pre-Raphaelite movement, 參照.

19) 註 12 參照.

20) 具然賦, Ibid., p. 5.

대한 존경심의 몰락」²¹⁾은 데카당스와 모더니즘이 생성된 동일 土壤이며, 그리고 데카당스가 리얼리즘(realism) 자연주의(naturalism) 등이 病理學的인 복잡다기한 生理를 내포한 시대상을 「唯物的, 機械的, 現象的으로 보려고한데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 생명적, 신비적 본질의 세계에 깃든 暗示와 象徵의 형태로」²²⁾서 「自意識」에 대한 관심의 漸高로 나타나는 것은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적 양상의 하나가 「여러 문제에 대한 예리한 인식, 끊임없는 자의식」²³⁾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相互 同軌에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발상된 소위 데카당스의 존재를 규명해 보는 것은 한국 모더니즘의 맥락을 이해하는 한 捷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19년 己未年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우리 민족에게 몰아닥친 절망과 불안과 挫絕感이 주로 「廢墟」同人을 중심으로 데카당스를 胚胎하여 급기야 「우리 朝鮮은 荒涼한 廢墟의 朝鮮이요, 우리 時代는 悲痛한 煩悶의 時代이다. (中略) 이 廢墟 속에는 우리들의 內的, 外的, 心的, 物的의 모든 不足, 缺乏, 缺陷, 空虛, 不平不滿, 울분, 한숨, 근심, 슬픔, 아픔, 눈물, 滅亡이 제여 있다. 이 廢墟 위에 설 때에, 闇黑과 死亡은 그 뿔뿔한 입을 크게 벌리고 곧 우리를 삼켜버릴듯 한 感이 있다. 역시 廢墟는 滅亡과 죽음이 支配하는 것이다.」²⁴⁾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시인들이 日帝라는 他律의 專橫의 支配에 의해 主權을 잃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현실과 거리를 두고 현실도피적인 自己 沒入의 체념과 한탄에 安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럽의 데카당스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럽의 데카당스 발생의 원인은 오직 유럽 자체 내의 內因에 근거하며, 自生的인 軌跡을 갖고 있는 것이요, 당시 한국의 廢墟를 중심으로 한 詩人들은 他律이 초래한 不得已한 절망과 체념을 표상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이들의 표현 욕구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 西歐 데카당스에 우연히 接脈되었을 뿐

21) Peter. Faulkner. Ibid., p. 28 參照.

22) 具然斌, Ibid., p. 4.

23) Peter. Faulkner. Ibid., p. 25.

24) 廢墟同人, 廢墟創刊號(서울, 廢墟社), 1920, 吳相淳의 時代苦와 그 犧牲, pp. 52--53, 여기서 具然斌, 前揭論文 p. 7에서 再引用.

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表皮的으로 메카당스의 양상을 표절하였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메카당스와 거리가 있고 차라리 센티멘털·로맨티시즘의 범주에서 파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박 인환은 그 詩作의 始作이 해방 후, 그러니까 우리가 自律을 획득한 이후란 점에서 우선 廢墟同人들과 對別된다. 뿐만 아니라 해방 한국이 自律을 志向하는 과정에서 당시 內在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一刹이 새롭게 급변하는 국내 情況, 累百年의 봉건적 전통의 殘滓와 日帝에 의해 他律的으로 主導되었던 諸般 文化 양상을 전면적으로 刷新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노도처럼 밀려들어 온 美國文化(americanism)——물론 박인환의 詩作은 노도같이 流入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은 물론이요, 여기서 미국문화란 분명히 外因的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廢墟同人들의 어쩔 수 없는 他律에의 영향관계와는 엄밀히 區分되어야 한다. 廢墟 同人의 그것은 他律 그 자체가 당시의 主體이었으나, 해방 후의 미국문화 流入은 外因的 요소이기는 하되 어디까지나 主體에 영향을 미치거나 궁극적으로 습합되어버린 非主體的 附隨的 요소라는 점이 바로 그 이유이다.——가 일층 가속화의 촉진제가 되었으니 이러한 시대는 19세기 말, 20세기를 受容하기 위한 준비로 슬렁이던 西歐의 當代的 상황과 동일한 패턴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西歐의 현대가 출산의 진통을 겪던 19세기 말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해방 후의 상황과 同軌에 있는 것으로서²⁵⁾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의 현대는 해방후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환이 예민한 감수성으로 受容하였던 당시의 상황은 그가 소년시절에 받았던 구태의연한 가치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병행한 급격한 혁신의 격랑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환은 과거의 낡은 詩作 태도를 철저히 파괴하는 新詩論에 동조하여 새로운 美學을 추구하였으며, 필연적으로 落朽한 한국에 流入된 미국 문화를 選好 志向하는 모던한 性向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는

25) 이 당시 우리 나라의 급변하는 문화양상이 내포하는 모더니티 지향성은 西歐의 19세기 말과 다름이 없다. 온톤의 나라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비로소 현대의 인식에 개안하였다.

Peter. Faulkner. Ibid., p. 18 參照.

보수적인 시인들에 대하여 다못 傲然한 맨디이즘(dandyism)에 젖어들게 되었으며 「검은 峻烈의 시대」에서 느끼는 인환 특유의 氣質的 폐시미즘을 동반하여 自己沒入의인 孤獨과 寂寥에 젖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데카당스와 同一한 패턴 바로 그것이다. 인환의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끼친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예컨대 G.I. 미국잡지 등—과 저물어가는 태양과 같은 전통의식과 함께 林立하기 시작한 腐亂한 현대문명은, 그러나 인환의 自我(noesis)²⁶⁾에 의해 정신적 폐허(spiritual cinder) 위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기 마련인 구원의 의미로 인식되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唯物的 思潮에 대한 회의와 도시문명이 喚起하는 퇴폐한 부르조아 휴머니즘에 대한 혐오와 함께 현대 산업문명의 발달이 초래한 메카니즘에 의해 무참한 살육과 파괴로 顯示된 동란으로 말미암아 더욱 深化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인환의 절망과 종말의식, 그리고 니힐리즘은 바로 데카당스의 본질적 패턴과 거의 同一하다. 인환이 포착한 「검은 峻烈의 시대」에서 喚起되는 검은 절망과 허무 그리고 峻烈한 공포와 고뇌는 인환의 모더니즘의 본질을 生成하는 주요 因子인 동시에 그의 모더니티가 데카당스적 패턴—맨디이즘과 니힐니즘을 包括한—을 內包하고 있음을 응변하는 것이다.

인환의 데카당스는 해방 이후 현대를 志向하는 自律 한국의 상황이 마련한 모더니티 지향성과 밀접한 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2-1-2. 맨디이즘(dandyism)의 측면

「데카당스는 맨디즘과 니힐리즘(nihilism)의 중간에 속한다. 나는 맨디에 보오들레르 니힐리즘에 니이체를 생각한다. 넓게 보면 이 세 사람은 모두 데카당이다. 보오들레르에서는 그 시원을 니이체에 있어서는 그 克服이 나타났다는 것 뿐이다.」²⁷⁾

上記 引用文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환의 데카당스는 맨디이즘과 니힐리즘을 동반한다.

26) 金叡五, Ibid., pp. 19-20 參照.

27) 唐木順三, 詩とデカダンス(東京, フォルミカ選書), 具然賦, 前掲論文, p.7 再引用.

李奉來氏는 박 인환의 댄디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낙하>와 <무도회> 두 편의 시를 例擧하였다.

미끄럼판에서
 나는 고풍한 아킬레스처럼
 불안의 깃발 날리는
 땅 위에 떨어졌다.
 머리 위의 별을 헤아리면서 (下略)
 —<낙하> 일절—

연기와 여자들 틈에 끼어
 나는 무도회에 나갔다.
 밤이 새도록 나는 광란(狂亂)의 춤을 추었다.
 어떤 시체를 안고,
 황제(皇帝)는 불안한 상들리에와 함께 있었고
 모든 물체는 회전하였다. (下略)
 —<무도회> 일절(傍點, 筆者)—

이 시들 속에 나타난 아킬레스와 황제는 바로 박 인환의 變身이라고 한다. 그는 「모리스·블랑쇼」의 偏執的 把握에 대한 言及을 引用하여 박 인환의 댄디리즘의 설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소위 偏執的 把握이란 이룰때면 육체와 두뇌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빛어지는 二律背反的 현상이요,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정신의 방황을 뜻한다는 私見을 덧붙인다. 그래서 안정된 사회보다 혼란과 동란의 시대의 인간에게 위기의식과 붕괴감각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한 것이며 박 인환의 시세계를 지배하는 의식구조는 有機的인 긴장관제를 상실한 언어 상호간의 위기의식이요, 붕괴감각이며 인환은 언어의 논리적 持續을 切斷함으로써 과민한 반응력을 가진 언어를 재발견했다고 한다.²⁸⁾

「실상 그는 시를 마지막 한 줄 부터 거꾸로 쓸 때도 있었다. 거꾸로 쓰는 그의 시의 문체는 전략과 경이 혹은 예기치 않은 조화(不調和의 調和)

28) 李奉來, 세월이 가면, pp. 107-108 참조.

를 구하려는 장난끼 섞인 의식적인 방법이었다.]²⁹⁾ 즉 이러한 「비논리적인 분해와 붕괴작업」³⁰⁾은 일종의 맨디이즘의 발현으로 메카당스시인의 주요한 作詩方法이며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 규명된 복잡다단한 현대가 內包한 斷絶性(discontinuity)과, 非合理性(randomness)을 反映한 현대시의 중요 기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행간의 의미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 단절과 당돌한 결합이 짜내는 이미지의 新奇가 무엇보다 고상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며」,³¹⁾ 이러한 시도는 인환의 생존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로서 인환이 아니면 감행할 수 없는 破格的인 시도였다.

해방 직후의 혼란의 渦中과 처참한 살육과 파괴의 6·25로 이어지기까지 인환의 感性이 受容한 붕괴의식과 위기 감각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라는 말의 頻度로 보아 분명하며, 더구나 여기에다 그의 복잡다단한 콤플렉스가 倍加되어 결국 이를 해소할 분출구를 요구하게 되고 만다. 「명문 출신인 아내에 대한 콤플렉스, 경기 공립 중학교(현 경기고교) 중퇴, 평양의전 중퇴라는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그리고 강원도 두메 산골 출신으로서의 촌놈 티를 벗기 위한 의식적인 도시문화 동경 등이 그를 오만스러울 정도의 자의식 과잉의 偏執의 把握이라는 현상으로 몰고 갔고, 그것에서 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맨디이즘이란 새로운 의상을 마련했던 것이다.»³²⁾ 실제 그는 생활에 있어서도 맨디이즘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며,³³⁾ 황폐한 정신세계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구원을 모색하기 위해

29) 金奎東, 세월이 가면, p. 56.

30) 이것은 메카당스의 주요 표현 기법이다. A. Preminger, 前掲書, p. 185. 前略) over emphasis on form, with resultant loss of balance between form and content—or interest in jewel—like ornamentation, resulting at times in disintegration of artistic unity; decadence

31) 金奎東. Ibid. p. 56. 參照.

32) 李奉來. Ibid., pp. 111—112 참조.

33) 金奎東, 朴寅煥論 패부의 神話와 장백한 魔法의 法則, 「金奎東 評論集—어두운 時代의 마지막 言語」. (白眉社, 서울, 1979.) p. 312, 인환은—아니 동인 모두가 그랬듯이 그런 일은 할 줄 모른다는 그 조그만 허영심과 자존심 때문에 부두 노동인은 종내하지 않았다. 그 어려운 배고픔의 미난 생활을 겪어가면서도 귀족이 아니면서 인환은 귀족같은 말투, 귀족나무랄이가 물려주기도 한듯한 그러한 멋—더욱 멋진 말로하면 프랑스적인 그러한 분위기와 풍모를 그는 남몰래 부러워하였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다.

발버둥친 그는 전통적인 명법한 도탈을 구유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객체로 밖에 인식되지 아니하는 娼婦에게서조차 灰燼의 세상에서 유일한 빛을 찾을 수 있는 역설적인 가치를 모색코자 하였으며, 심지어 娼婦를 일컬어 새로운 神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인환의 던디이즘은 시니시즘 cynicism³⁴⁾의 성격마저 띠고 있다 하겠다. —이것은 보들레르의 데까당스와 同軌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未來의 娼婦

새로운 神에게

여윈 목소리로 바람과 함께
우리는 내일을 約束하지 않는다.
승객이 사라진 열차 안에서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너희 희망은 나의 誤解와
感興만이다.

……………(中略)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너의 욕망은
나의 질투와 發狂만이다.

香氣 질은 젓가슴을
총알로 구멍 내고
暗黑의 地圖 孤絶된 치마 끝을
피와 눈물과
최후의 생명으로 이끌며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너의 목표는 나의 무덤인가.
너의 終末도 영원한 과거인가.

上記 引用詩의 副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娼婦는 새로운 神과 等價 관계에 있다.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既存 전통과 도탈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당스의 본질과 接脈되어 있는데 단 娼婦 앞에 붙어 있는 「未來」

34) A. Preminger, 前掲書. Scorn of contemporary society and mores; decadence, p. 185 参照.

라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에 썩 미묘함을 느낀다. 이것은 우선 冒頭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일을 約束하지 않는다」에서 부정되어 있는 미래와 함께 미래의 개념 파악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 전체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제목의 未來와 冒頭의 未來는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안다. 즉 冒頭의 부정되어 있는 내일은 인환이 존재한 현실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니, 그가 「박 인환 選詩集」 後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방 직후, 6·25에 이르기까지를 「검은 峻烈의 時代」라고 稱한 사실을 보면, 그것은 인환이 절망하고 괴로와한 당시의 현실 그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환은 “오 그대 미래의 娼婦여, 너의 목표는 나의 무덤인가, 너의 終末도 영원한 과거인가”라고 반신반의하면서도 未來에 대한 희망과 구원의 회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제목의 未來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未來의 娼婦란 야누스적인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조롱하고 既存 모랄과 전통을 부정하는 뉘디즘적 데까당스 자세의 표출이며, 다른 하나는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과 구원의 대상으로 표상된 것이다. 하필이면 희망과 구원의 대상으로 娼婦를 선택하였느냐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이것은 보들레르와 同軌에서 이해가 가능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의 娼婦는 「흙」이 말한 바와 같이 灰燼 바로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인환의 뉘디즘은 그의 실제 생활이나 또는 시의 내용에 함축된 이미지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한가지 양상을 이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니 그것은 인환의 일부 시에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센티멘털 잼니」, 「透명한 버라이어티」 「사랑의 parabola」 등³⁵⁾이 그것인데, 특히 「透명한 버라이어티」에서는 럭키·스트라이크, 타이프라이터, 핸드백, 페리이 코모의 <파파 러브스 맘보>, 트럼펫, 데모크라시, M. 몬로, 크레졸, <루돌프·엘폰소·발렌티노>, 스트립 쇼우, 아메리카 모라리자, 필립 모오리스 브리지, 굿바이. 굿 엔드 굿바이 등 한글로 표기된 외국어 이외에 VANCE, BINGO, RA-

35) 이 외에도 書籍과 風景, 거리, 充血된 눈동자, 어느날 등 多數 있다.

INIER, LATE NIGHT NEWS, CBS, MT·HOOT 등의 생소한 영문자가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노도처럼 流入되던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연유이겠으나, 당시 아직까지 서양 문물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구태의연한 전통과 유교적 교양 및 사고방식의 카테고리에서 미처 脫殼되어 있지 않던 시대로서는 日帝 때부터 詩作을 하던 소위 既成시인이거나 또는 이들의 패턴에 잘 적응되어 있던 既成독자에게 아주 術學的이며 전방진 作詩 태도로 인식되었거나 또는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이러한 양상이 바로 모더니즘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作詩 태도는 既存 전통과 질서를 부정 내지 혁신하는 획기적인 태도란 점에서 모던(modern)하다는 평을 받았음은 당연하나, 인환의 모더니즘을 이러한 것으로 그냥 파악하고 말아서 는 문제가 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모던하게 비쳤던 이러한 修辭學的인 外面的 표현에서 야기된 당시의 既成 시인과 평단 및 독자들의 경악과 비난은 그 원인이 바로 인환의 데카당스적 맨디이즘의 측면에 맥락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看過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의견적 표현상의 破格的이며 획기적인 태도는 인환의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데카당스적 패턴의 중요 因子인 맨디이즘적 측면의 또 다른 양상의 발현으로 볼수 있다.

물론 「透明한 버라이어티」와 같은 패턴의 시는 인환의 시의 전체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인환의 시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작은 부분마저 결코 看過될 수 없다.

인환이 소년시절을 보냈던 맹목적인 복종과 被動性만이 요구됐던 획일적 군국주의와 판이하게 다른, 다양한 양상으로 급변하는 해방 직후의 激浪은 그가 소년시절에 전혀 접하거나 겪어보지 못한 새롭고도 다양한 패턴으로 그의 민감한 감수성을 예리하게 자극하였으니, 이미 그에게서는 한국의 구태의연한 전통과 既存 美學, 질서는 필연적인 부정의 대상일뿐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인환은 해방 한국의 정신적 灰燼 위에 새로운 가치관과 美學을 모색치 아니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환의 시는 前掲 「未來의 娼婦와 같은 영탄 속에 절망하여야 했으며 前述 「透明한 버라이어티」

의 경우와 같이 破格的인 외국어 사용과 西歐문명 選好의 사뭇 傲然한 뉘디이즘의 발현으로 허물어져 가는 한국의 전통과 既存 가치관을 부정하며 既成 선배의 美學에 오만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것이다.

인환의 뉘디이즘 발현의 티켓은 분명히 해방 전 한국이 전지하였던 남은 전통과 因習이었으며 해방후까지 殘存하던 소위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것이다.

2-1-3. 니힐리즘(nihilism)의 측면

인환이 느끼는 憂愁와 虛無의 軌跡은 그의 시全般에 걸쳐서 躍如하게 드러난다. 朴寅煥 詩集「木馬와 淑女」에는 모두 62편의 시가 4부로 나뉘어져 실려 있다. 여기의 詩篇들을 주욱 통독해 보면 박인환 시인의 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情調나 톤(tone)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 連繫관계가 있는 詩語들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서, 아마도 이러한 詩語를 인환 자신이 의식하고 썼지는 않았으리라. 말하자면 박인환 시인의 본질적인 체질, 즉 일종의 스타일로서 무의식중에 이러한 詩語가 자연발생적으로 流露되어 이것이 박인환 시에 있어서의 특징적 패턴을 형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박인환시집「木馬와 淑女」에 所載된 시全般에 걸쳐서 詩語를 분석해보면 자명해진다.

첫째, ³⁶⁾ 죽음을 뜻하는 詩語,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詩語를 모두 摘出해보면, 죽음, 주검, 죽으려, 죽고, 죽기, 죽어간, 죽은, 친한 죽음, 죽을지라도, 죽는다, 죽임, 죽었다, 죽어가던, 임종, 戰死, 연옥, 지옥, 묘지, 공동묘지, 무덤, 棺槨, 장송곡, 진혼가, 망령, 訃告, 끝마칠, 시들어, 썩어지고, 멸망, 소멸, 사멸, 파멸, 주검, 시체, 死者 등 약 65회에 이르고 있어 이 시집 所載 62편에 평균 1회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울음이나 눈물, 또는 서러움의 개념을 내포하는 시어를 摘出해 보

36) 詩語 分析의 텍스트는 權城書齋 刊「木馬와 淑女」1976.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有似한 이미지와 杼攄스 nuance 를 풍기는 詩語를 類型別로 정리하는 것으로서, 통계수치의 정확도는 多少 애매한 점이 있으나 分布의 均사치는 거의 명백하다.

면, 울음, 울었다, 슬픈, 슬픔, 실움, 목메어, 서럽고, 흐느끼는, 비애 등 약 50여회, 세계 불안이나 불행 또는 위기, 不吉, 불운 등은 약 45회, 네째 고독, 孤絶, 孤立, 및 처량한 쓸쓸한, 폐시미즘, 센터멘털 등 感傷的 憂愁의 杼杼스름 풍기는 말은 모두 약 55여회, 다섯째 종말, 최후, 말로 등은 19회, 여섯째 작별, 헤어져야, 떠나야 등의 이별을 뜻하는 말은 약 17여회, 일곱째 회상, 향수, 추억, 망각, 지난날, 과거 등의 과거 志向性을 표상하는 시어는 모두 27회, 여덟째 죽음과 공포, 그리고 절망술의 미하는 색인 회색 및 어둡고 검은색의 수효는 약 60여회, 아홉째 전쟁의 파괴와 폐허를 상징하는 처참, 비참, 悲愴, 비장, 비정, 陰慘, 참혹, 냉혹, 가혹, 찢어진, 깨어진, 부서진, 파괴, 금간, 으르러지며, 廢園, 雜草園, 흔들리는, 허물어지는 등은 약 35여회, 열번째 술, 술병, 술집, 酒場 등은 17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類型化해 보면 ① 죽음, ② 고독, ③ 슬픔, ④ 불안, ⑤ 작별, ⑥ 회상, ⑦ 파괴, ⑧ 종말, ⑨ 술, 그리고 ⑩ 박 인환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검은 색이 아니면 회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類型은 박 인환 시집 全歌에 걸쳐서 분포된 것이므로 과연 이것이 박 인환 시 세계의 패턴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박 인환 특유의 패턴의 造成 이유는 지금까지 論述한 바에 말미암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한 가지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인환 특유의 個性(personality)이나 氣質이 그 축진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경험의 사정(射程)을 변경하거나 끌어 당길 때 다만 그에 따라 소생하는 내면적 리듬의 격렬한 교양이 무관심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곳에 그의 기교는 있어 보인다. (中略), 신중성과 계산을 도외시하는 그의 시적 기술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비타협적인 서약을 안겨주며 그것을 확신시키는데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³⁷⁾

上記 金奎東氏의 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환은 生來的으로 詩語의 의식적인 選別 내지는 彫琢과 다소 거리가 있고, 이러한 美學 추구예의 노

37) 金奎東, 前掲書, 寅煥의 화려한 離散과 渌暎의 疎外意識, p. 248. (傍點·筆者)

력에 先行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先天的인 直情的 本性 바로 그것이다. 실체 그는 매우 흥분을 잘 하였고 감격을 잘하였으며 한번 흥분하거나 감격하면 결코 참을 줄 모르는 열화같이 뜨거운 사나이였다.³⁸⁾ 이러한 자유분방하고 直情的인 젊은 폐기와 정열은 인환이 느끼는 感性을 그대로 表出하고 말게 하였지 이것을, 詩想을 유발케 한 客體에 대해 일정한 美學的 거리(aesthetic distance)를 전지하여 차분하고 유유히 思惟하며 彫琢할 수 있는 틈을 주는 데는 인색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환의 시는 다소 非知的的(anti-intellectual)³⁹⁾인 경향을 띄게 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의 시는 知性보다는 예민한 感性이 勝하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인환의 너털리즘을 더욱 深化시킨 장본인이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으나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中略)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下略)
「歲月이 가면」 일절.

(前略)

回想的 起源
汚辱의 도시
황혼의 亡命客
검은의투에 목을 굽히면
들러 오는 것
아 영원히 듣기 싫은 것
쉬어 빠진 鐘魂歌
오늘의 폐허에서

38) 李鳳九, 내가 알던 시인 박 인환, 신 시학 1권 2호, 1959. 5. 1. pp. 44-46. 초조와 흥분 때문에 인환의 성격은 칼날처럼 푸르렀다. 멋과 기분 없이는 한시도 참 수 없었던 인환이었다. ……(中略). 대포잔을 들다 말고 뛰어나와 거리에서 서성거리며 화를 내기가 일쑤였다. ……밤낮 그 멋과 기분 바람에 술타령을 하나 인환의 술은 뜻술이었다.

39) A. Preminger, Ibid., p. 185 參照.

우리는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一九五〇年の 사절단 (下略)

<最後의 會話> 일절

입술에 피를 바르고

미스터 某는 죽는다

어두운 標本室에서

그의 生存時의 기억은

미스터 某의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인도 없이

유산은 더욱 없이

미스터 某는 生과 死를 작별하는 것이다. (下略)

<미스터 某의 生과 死> 일절

週末 여행

葉壽……落葉

낡은 유행가의 설움에 맞추어

疲弊한 소설을 읽던 少女.

李太白의 달은

울고 떠나고

너는 壁畫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는 淑女.

.....

술을 마시면 즐겁고

비가 내리면 서럽고

分別이여 區分이여.

樹木은 외롭다

혼자 길을 가는 女子와 같이

정다운 것은 죽고

다리 아래 江은 흐른다.

<센티멘털 자니> 일절

이러한 패턴을 빚어내게 된 원인은 지금까지 論述한 바이나 크게 大別

해보면 하나는 時代相에 대한 인환의 인식이요, 하나는 인환의 生來의 인시인으로서의 本性이다. 그가 시대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그의 述懷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는 10여년 동안 시를 써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中略) 여하튼 나는 우리가 걸어온 길과 잘 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分裂한 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순수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본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에 실을 작품들을 발표하였다.⁴⁰⁾

이렇게 인환은 그가 생존하던 시대를 「점은 峻烈의 시대」로 인식하여 절망하고 고뇌하였으며, 이러한 인환의 noesis와 그 특유의 直情的 기질과 感性이 混融되어 구체적 自我로 나타난 것이 박 인환의 咳唾이다. 이러한 데카당스적 니힐리즘이 인환의 시에 깊은 그늘을 드리운 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현대는 해방 이후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모더니즘은 金起林의 主知性과 다이나믹한 시 세계의 개척, 李箱의 언어관념 파괴와 형식 추구, 金光均, 장 만영 양씨의 언어의 새로운 결합에서 오는 광석과 같은 이미지의 시도」⁴¹⁾ 등 다양한 軌跡을 갖고 있거니와 해방 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앤솔로지로부터 비롯된 후반기 모더니스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이는 稿를 달리하여 천착하기로 한다——박 인환의 모더니즘은 분명히 西歐 모더니즘의 선구가 되는 데카당스의 본질을 內在하고 있으니 이는 거듭 되풀이 되거니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은 당시 우리의 현실은 현대를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던 19세기의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던 탓이

40) 朴寅煥, 選詩集 後記, 세월이 가면, Ibid., pp. 253-254.

41) 金慶麟, Ibid., p. 28.

다. 말하자면 昨今에 모더니즘의 성패 여부가 諸家에 의해 異論이 紛紛하였거니와 결국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西歐와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점을 거론치 않을 수 없다고 할 때, 이 문화적 토양의 相異性이 박 인환의 경우에서와 같이 약 1세기라는 시간적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환의 데카당스는 前述한 바와 같이 덴디리즘과 니힐리즘을 동반하며 이것은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더욱 深化되어 「모리스·블랑쇼의 지적」⁴²⁾과 같이 偏執의 披握에 의한 죽음, 허무, 공포, 슬픔, 感傷의 패턴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것은 인환의 直情의 性品과 氣質, 그리고 美學的 거리(aesthetic distance)의 동한시에 의해 센티멘탈리즘(sentimentalism)으로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후반기 모더니즘의 리더 격인 金慶麟의 「우리는 현실의 과학적인 면에서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신선한 이미지의 세계를 구상화하여야 하며, 이 세계는 인간성의 기반 위에 구성되어야 한다」⁴³⁾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신선한 이미지 형성에 다소 이탈한 自己沒入의 感傷性에 沈潛한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는 편수가 꽤 많다. 그러나 인환의 센티멘탈리즘의 저변에는 검은 峻烈의 時代에서 상실되어져 가는 따뜻한 人間性에의 애잔한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그가 한 때 傾倒되었던 峻烈한 不安의 시대가 마련한 도시문명의 거대한 메카니즘에 의해 파괴되고 살륙되어지는 인간에 대해 시인의 뜨거운 호흡에 의한 휴머니티에의 열렬한 갈구가 숨어있어 있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은 6·25 동란을 소재로 한 그의 一聯의 詩篇들, 예컨대 「어린 딸에게」, 「한줄기 눈물도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信號彈」 등에서 몽클한 휴머니즘으로 발현되어 있다.

機銃과 砲聲의 요란함을 받아 가면서 /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世界로 /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하고 / 힘없이 자란다 // 엄마는 너를 껴안고 三個月 간에 / 일곱번이나 이사를 했다. // 서울에 피의 비와 / 눈 바람이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 너는 입을 웃도 없이 벌거숭이로 / 貨車 위 별을 헤아리면서

42) 李奉來, Ibid., pp. 107-108 參照.

43) 金慶麟, 현대시의 구상성. Ibid., p. 30.

南으로 왔다//나의 어린 딸이여 고통스러워도 哀訴도 없이/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무엇을 그리 우느냐.//너의 호수처럼 푸른 눈/지금 멀리 敵을 擊滅하러 바늘처럼 가느다란/機械는 간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다.//엄마는 戰爭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 하나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행복할 것인가//전쟁이 끝나면 너는 더욱 자라고/우리들이 서울에 남은 집에 돌아갈 적에 너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그런 계집애.//나의 어린 딸이여 너의 故郷과 너의 나라가 어데 있느냐 그때까지 너에게 알려 줄 사람이/살아 있을 것인가.

<어린 딸에게> 全文

이와 같이 그의 데카당스는 그 內面에 정신적 灰燼 위에서 밝은 희망과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希求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 內在해 있으며, 센터멘털 니힐리즘으로 점철된 그의 절망과 불안 그리고 우울한 詠嘆 그 이면에 후머니즘 추구에의 집념과 열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結 論

인환은 일차대전이 끝난 8년 후의 日帝 治下에 태어나서 이차대전의 渦中에서 허덕이던 日帝 말기에 소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아울러 보냈으며, 해방후 6·25에 이르기까지의 격동기에 청년기를 보냈다. 인환은 이러한 激浪의 시대상을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直情的인 性品으로 소위 「검은 峻烈의 시대」로 포착하였다.

인환이 詩作을 왕성하게 전개하던 해방 이후는 累百年의 봉건적 전통과 격조 및 이에 준하는 가치관이 붕괴하고 日帝라는 他律의 專橫이 終熄됨과 동시에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新紀元的인 民主主義를 표방한 自律志向과 더불어 노도같이 流入된 미국 문화가 混流된 渦中은 19세기말 현대를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던 西歐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인환은 모든 구시대적 유물과 殘滓에 대하여 철저히 부정적인 입장에 섰으며, 前代에 대한 이러한 부정에 의해서 마련된 정신적 灰燼 위에 새로운 가치관과 구원의 이념을 希求하여 본질적으로 西歐의 데카당스와 脈絡을 통하

고 있다. 이렇게 그의 모더니즘이 메카당스적 본질에 맥락을 통하고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카당스와 모더니즘은 前近代의 「권위에의 존경심의 몰락」⁴⁴⁾에 의한 反傳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美學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동일하다.

둘째, 唯物的思潮에의 반발——리얼리즘(realism), 自然主義(naturalism) 등에 대한 반발이 喚起한 自意識에의 관심의 漸高와 自然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던 점.

셋째, 산업문명 발달로 인한(mechanism)에의 혐오와 이에 의한 疎外와 孤獨, 그리고 絶望을 痛感하였다는 점.

네째, 腐亂한 현대 도시문명이 惹起하는 부르조아 휴머니즘(bourgeois humanism)에의 부정과 궁극적으로 네오 휴머니즘(neo-humanism)을 추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인환 特有의 모더니티는 결국 時代相에 대한 인환의 인식과, 그의 시인으로서의 生來의 氣質 및 直情的 感情이 混融되어 生成되어 졌음은 이미 本論에서 누누히 論述한 바이다. 특히 後者에 의해 야기된 그의 深化된 센티멘탈리즘은 本論의 詩語 分析에서 躍如하게 나타나는 바이요, 이것은 그의 메카당스적 니힐리즘의 측면에 밀접하게 連繫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그의 시인적인 缺陷으로서 그의 모더니티의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缺陷에도 불구하고 그의 뜨거운 感性(feeling)은 그의 本然인 휴머니즘을 잘 表출하고 있어 독자의 감동을 진하게 喚起하고 있거니와 선배 모더니스트인 金起林에 비하면 다같이 현대 도시문명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휴머니즘 발현이 그의 모더니티의 한 특색이자 독자의 共感帶의 넓은 폭을 지금까지 견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일까 싶다.

44) Peter Faulkner, *ibid*, p. 28.

參考文獻

- 具然弼：現代詩의 方法論의 考察，東亞論叢，1972，別刷。
- 金慶麟：인환과 나와 그리고 현대시。
- 金奎東：한글기 눈물도 없이。
- 李奉來：박인환과 앤디즘 dandyism。
 以上 세월이 가면，詩人，朴寅煥과 文學과 그 周邊，權域書齋，1982。
- 金埃五：詩論，文章，1982。
- 金奎東：金奎東 評論集，어두운 時代의 마지막 言語，白眉社，1979。
- 宋 穰：詩學評傳，一潮閣，1963。
- 金容稷：韓國現代詩研究，一志社，1976。
- 文德守：韓國모더니즘詩 研究，詩文學社，1981。
- 吳世榮，모더니스트，비극적 상황의 主人公들(文學思想 통권 28 호) 1975。
- 李鳳九：내가 알던 시인 박인환，신시학 1권 2호，1959.5.1。
- 韓奉玉：韓國現代詩研究，親學社，1975。
- 朴寅煥：詩集，木馬와 淑女，權域書齋，1976。
- A. Preminger 外 共著，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1974.
- Peter. Faulkner. Modernism. 黃東奎 譯，문학비평총서 18，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T.E. Hulme. Cinders' Specul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24, 1958.